

지역 매아리

김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19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간사, 관계 공무원 등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 민간위원에게 시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공공위원장,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읍면동 복지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다.

현재 19개 읍면동별 지역실정에 맞게 위원10~25명으로 구성해 총 328명의 위원이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발굴, 복지문제를 논의, 지역사회 특화사업을 추진해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총출동 인적안전망을 형성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자는 취지에서 김제시가 주최한 것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읍면동장(공공위원장) 및 복지담당 공무원 등 357명이 참석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 마을 전경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만든다

완주군 2020년까지 조성 3년간 9억400만원 투자 무대·포토존 등 정비

완주군이 삼례읍 비비정 마을을 농촌웨딩공간으로 조성한다.

완주군은 삼례읍 비비정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웨딩공간을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사업은 완주군이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3년간 9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비비정 농촌마을의 역사, 경관, 관광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인 농촌웨딩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최근 웨딩문화 트렌드가 친지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결혼식으로 옮겨가고 있고, 경관 좋은 농촌에서 즐기는 파티 문화로 변화되고 있음을 착안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

앞으로 비비정 농촌웨딩공간은 야외 공연장을 웨딩무대로 단장하고, 웨딩 포토존 설치, 전망대 조성과 산책길을 정비한다.

이외에도 비비정만의 대표 먹거리 개발과 농촌웨딩운영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고, 온라인 사이트 구축을 통한 농촌웨딩 홍보마케팅도 적

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농촌웨딩공간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농촌관광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인근의 등록문화재인 삼례암수장, 비비정 정자, 호산서원, 삼례문화예술촌, 삼례역 등 우수한 마을 자원을 활용해 비비정 마을을 특색화한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은 "비비정 마을의 자연경관과 농촌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해 완주군민의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농촌웨딩문화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 '민원해결 달인' 별명 얻어

매주 시민과 소통의 날 운영 2개월간 127건 중 99건 처리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민선7기 공약사업 '직소민원의 날' 일환으로 시민·시장 소통마련의 날을 매주 월요일을 지정,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12명 내외 시민의 불편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8월 28일 8번째 운영, 종합민원실 내 직소민원의 날 운영이 시민 사이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민선7기 취임 2개월 동안 127여건 중 총8회 99건 민원인 중심의 상담과 처리를 통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미해결 민원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 적극 나서는 등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법적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유사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최대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박준배 김제시장이 민선7기 공약사업 '직소민원의 날' 일환으로 28일 종합민원실에서 시민의 불편 고충을 직접 듣고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의 날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해당 실무소에 주문했다.

지난 8월 20일 직소민원의 날 운영은 김제시 금산면 원평 명산아파트 93세대 178명 숙원사업인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지원 사업 해결함으로써 민원해결 달인으로 명산아파트 주민

에게 칭송을 받기도 했다.

이날 명산아파트 상수도 민원을 비롯 20여건에 대해 박준배 시장이 민원인과 직접대화를 통해 상담하고 해당 실무소장을 참석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직소민원의 날이 시민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드림스타트, 군산 벤치마킹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군산시 드림스타트를 벤치마킹했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드림스타트는 최근 벤치마킹을 위해 군산시 드림스타트를 방문해 군산시의 프로그램 운영 관리 현황을 파악했다.

완주군 드림스타트 팀원 및 사례관리사들은 군산시 드림스타트에서 프로그램 관리와 지역자원 현황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군산시 드림스타트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이맘스 카페와 장난감 도서관을 둘러봤다.

이계임 행정복지국 국장은 "군산시는 많은 지역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며 "완주군 드림스타트에서도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기법을 활용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다문화가정 위한 특별행사 눈길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국음식 나눔의 장 마련

김제시 교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우근)는 29일 입석출다리기전승관에서 결혼이주여성 20명과 함께 사랑나눔의 장을 마련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러브인교월동' 사업을 펼쳤다.

이번 사업은 두차례의 간담회와 여러 준비과정을 거쳐 다문화가정의 고국음식 만들기과 한국음식감작을 통해 함께 배우고 나누는 '러브인교월동' 만남의 장이 마련됐다. 러브인 교월동은 다문화세대를 지역발전 기여자로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지역내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행사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다문화여성 총 20여명이 참여했고, 참여자를 2개조로 나눠 닭살국수(베트남)와 만두(중국)를 만들어 교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넉넉히 만든 음식은 지역내 경로당에 지원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지역내 다문화 가족과 소통하면서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친밀감이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과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계획 보고회

김제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준배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8월초에 개최된 공약사업 검토보고회를 통해 결정된 7개 분야 80여개 사업에 대한 4년간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내용 보완 및 수정을 통해 공약사업 확정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실현하겠다는 시정지표를 바탕으로 '청장년·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 일자리 3천명 창출', '지역 인재육성과 인사업의 7.0으로 혁신', '새만금 세계경제 중심 기초 마련', '농특 6차 산업

화와 한중 FTA 위기 극복', '여성노인 다문화 살맛 증진', '전통시장 활성화 등 시민주도 행정', '상생 평화 중심의 문화체육 관광선도'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보고회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에 대해 의견공유를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공약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보고회에서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 선수를 위해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도·비 예산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법인·단체차량 변경 안하면 과태료"

기간 경과시 최고 30만원 부과

완주군이 법인·단체 소유 차량의 법인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완주군은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법인정보의 상호, 사용부처, 법인등록번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신청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인 또는 단체의 변경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등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을 해야한다.

기간 경과 시 차량 1대당 최소 2만원에서 초과된 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차량 변경등록 신청은 가까운 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인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변경등록 및 과태료 사전안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063-290-28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임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삿포로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메르티 지겨 휘트,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